

문 대통령-김 위원장 JSA ‘도보다리’ 함께 걸으며 친교 산책

정상회담 어떻게 진행되나

역사적인 '2018 남북정상회담'의 구체적인 일정과 진행 형식이 공개됐다.

남북정상회담준비위원회 위원장인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26일 경기도 일산 킨텍스 메인프레스센터에서 정상회담 일정을 구체적으로 발표했다.

일단,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판문점 북측 판문각 계단을 걸어서 내려올지, 판문각 옆까지 자동차를 타고 와서 곧바로 군사분계선을 넘을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27일 오전 9시 30분에 판문점 군사분계선에서 처음 만나고 발표됨으로써 도보로 군사분계선을 넘는 김 위원장의 모습이 전 세계에 실시간으로 중계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군사분계선에서 김 위원장을 악수하고 함께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 두 정상은 우리 측 전통 의장대의 호위를 받으면서 공식 환영식장인 자유의집과 평화의집 사이의 판문점 광장까지 도보로 이동한다.

두 정상은 이곳에서 2000년, 2007년 남북정상회담 공식 환영행사 때와 마찬가지로 의장대를 사열한다. 사열을 마치고 양 정상이 상대측 공식수행원과 인사를 나눔으로써 환영식도 종료된다.

환영식 종료 후, 두 정상은 평화의집으로 들어간다. 김 위원장이 1층에 마련된 방명록에 서명하고 나면 문 대통령과 함께 기념촬영을 한다. 이후에는 같은 층에 있는 접견실로 이동해 잠시 사견환담을 한다.

두 정상은 2층 정상회담장으로 이동해 오전 10시 30분부터 정상회담을 시작할 예정이다. 오전 정상회담이 끝나면 양측은 별도의 오찬과 휴식시간을 갖는다. 이때 북측은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측으로 올라

우리측 의장대 호위 받고 사열

오전 10시 30분부터 정상회담

북, 북측으로 가 오찬과 휴식

‘정주영 소떼 길’ 소나무 심어

리설주 동행 여부는 미정

가서 오찬과 휴식을 한다. 오후에는 정상회담을 하기 전 평화와 번영을 기원하는 뜻을 담은 공동 기념식수를 한다. 식수 장소는 고(故)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이 소개를 맡고 고향으로 방북했던 군사분계선 인근의 ‘소떼 길’로 식수목은 정전협정이 체결된 1953년생 소나무다. 소나무 식수에는 한라산과 백두산의 흙을 함께 섞어 사용하고 식수 후에 김 위원장은 한강수를, 문 대통령은 대동강 물을 주게 된다. 식수 표시석에는 ‘평화와 번영을 심다’라는 문구와 함께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서명이 함께 들어간다.

공동식수를 마치고 군사분계선 표시물이 있는 ‘도보다리’까지 양 정상이 친교 산책을 하며 담소를 나눈다. ‘도보다리’는 정전협정 직후 중립국 감독위가 판문점을 드나들 때 동선을 줄이기 위해 판문점 습지 위에 만든 다리다. 준비위는 이번 정상회담을 준비하면서 도보다리 확장 공사를 진행했다.

산책 후에는 양 정상이 다시 평화의집으로 이동해 오후 회담을 이어간다. 회담을 모두 마치고 합의문 서명과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데 형식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임 실장은 브리핑에서 “가급적 정식으로 공동발표를 하고 싶은 마음이나 합의 수준에 따라 형식과 장소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오는 27일 남북 정상회담장인 공동경비구역(JSA) 판문점에서 친교 산책을 할 때 마주칠 ‘도보다리’는 JSA를 가로지르는 군사분계선(MDL) 위에 지어진 회담장과 그 동쪽에 있는 중립국감독위원회(중립위) 사무실 사이에 놓인 길이 50m쯤 되는 작은 다리다. 지난 6일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위원장인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한 위원들이 판문점 현장 점검에 나서 도보 다리를 걷는 모습. /연합뉴스

오후 6시 30분부터는 양측 수행원이 참석하는 환영 만찬이 평화의집 3층 식당에서 열린다. 환영 만찬까지 마치고 나면 별도의 환송행사가 이어진다. 양 정상은 판문점 평화의집 전면을 스크린처럼 만들어 ‘하나의 봄’을 주제로 한 영상을 감상한다. 김 위원장의 부인 리설주의 동행 여부는 여전히 정해지지 않았다. 리설주가 동행하게 된다면 공식 환영식과 환영만찬 등의 행사에 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와 함께한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내외신 기자 3천명 프레스센터에 집결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역사적인 회담 소식을 전 세계로 타전할 메인프레스센터(MPC)가 26일 경기 일산 킨텍스 제1전시장에 문을 열었다.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프레스센터 지원단은 이날 오전 9시부터 28일 오전까지 MPC를 운영할 예정이다. 축구장 1개 크기에 달하는 1만㎡ 규모의 시설에 운영 요원 65명이 투입되고, 방송에도 쉬지 않고 가동된다.

통합 브리핑룸은 MPC의 중추 시설이다. 회담 당일인 27일에는 무대 양 옆의 대형 스크린을 통해 판문점 현장 상황이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내신 기자석 550석, 외신 기자석 360석, 자유석 150석 등이 설치된 통합 브리핑룸은 1000여 명의 취재진을 한꺼번에 수용하기 충분하다. 모든 브리핑은 외신 기자들의 편의를 위해 영어, 중국어, 스페인어, 아랍어 등 9개 언어로 동시 통역되며, 영문 보도자료가 별도로 제공된다.

통합 브리핑룸을 중심으로 방송 중계석과 방송사 전용 부스 등으로 구성된 국제방송센터(IBC), 사진·영상 편집실, 인터뷰룸 등 각종 취재지원 시설이 들어서 있다. 하루 5번 메카를 향해 기도하는 이슬람교도를 위해 나침반과 양탄자를 비치한 전용 기도실은 지원단이 취재진의 다양한 요구에 대비해 만반의 준비를 했다는 사실을 드러낸다.

이밖에 정상회담 주관사인 KT가 판문점 자유의집 브리핑룸을 360도 영상으로 생중계하기로 함에 따라 여기에 사용되는 5세대 이동통신(5G)과 가상현실(VR) 기술을 소개하는 전시관도 MPC에 설치됐다. 이번 정상회담 MPC는 과거 두 차례 정상회담 때 MPC로 사용한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보다 7배가량 큰 규모다. 오히려 평창동계올림픽 MPC와 견줄 만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별히 매머드급 MPC를 마련한 것은 남북-북미정상회담으로 이어지는 한반도 평화 조성 국면에 대한 내외신의 관심이 그만큼 뜨겁기 때문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프란치스코 교황 “정상회담 성공 기원”

마리안느·마가렛 노벨평화상 추진위 점진

프란치스코 교황이 ‘소록도 전사’ 마리안느·마가렛 간호사의 40여년간의 봉사과 사명에 큰 관심을 보이며, 두 간호사의 건강과 평안을 위해 축복기도를 했다.

25일 전남도와 소록도당에 따르면 교황 소록도에서 40여 년간 봉사한 마리안느 스토거와 마가렛 피사레 간호사를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한 해외 홍보단이 이날(현지시간) 바티칸시국 교황청을 방문, 프란치스코 교황을 알현했다. <사진>

“마리안느·마가렛 노벨평화상 추진위원회” 위원장인 김황식 전 국무총리는 교황에게 두 간호사의 사연을 소개했다. 이에 교황은 큰 관심을 보이며 두 간호사의 건강과 평안을 위해 축복기도를 했다고 홍보단원으로 동행한 김연준(새마리안마가렛 이사장)이 전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또 전 세계에서 모인 신자들에게 “27일 남북정상회담이 열린다. 이번 두 정상의 만남이 한반도와 전 세계의 평화 보장을 위해 투명한 대화, 화해와 형제에 회복의 구체적 행보를 시작할 좋은 기회”라며 “지역과 세계평화를 위해 용기있는 행동을 해달라”고 회담 성공을 기원했다.

이에 대해 김황식 위원장은 “교황께서 한반도 평화와 정상회담 성공을 위해 모두가 함께 기도하시는 축복의 말씀을 해주



<전남도 제공>

셔서 희망과 용기를 얻었다”며 “우리도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회답했다. 홍보단은 26일에는 사회적 약자의 권익 신장을 위해 오스트리아 빈에 설립된 반기문세계시민센터를 방문, 센터 공동의장인 하인츠 피셔 전 오스트리아 대통령을 만나 두 간호사를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하는 데 적극 협조해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박정욱기자 jwpark@

김영남·김여정 등 수뇌급 인사 총출동

북 참여 인사는

북한이 2018 남북정상회담에 참석하는 김정은 국방위원장의 수행원을 매머드급으로 구성해 주목된다.

김 위원장이 북한의 실질적 최고지도자인 상황에서 헌법상 국가수반인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포함해, 김 위원장의 여동생으로서 실질적 2인자인 김여정 당 제1부부장도 참가한다.

북측은 여기에 주요 의제인 비핵화와 평화정착, 남북관계를 책임지는 수뇌급 인사를 총망라했다. 비핵화에서는 리수용 당 부위원장 겸 국제부장과 리용호 외무장

이 포함됐다. 두 사람은 북한의 외교정책을 총괄하며 앞으로 미국과 비핵화 협상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사들이다.

평화정착 논의와 관련해서도, 북한이 군부 투톱을 수행단에 넣은 점이 눈길을 끈다. 국방정책을 총괄하는 박영식 인민무력상과 야전군을 총괄 지휘하는 리명수 군 총참모장이 참가함으로써 문재인 정부가 기대하는 비무장지대(DMZ) 내 긴장완화 등의 조치를 끌어내고 이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위원장인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26일 브리핑에서 “(북한) 핵심책임자들의 참석은 이번이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 남북 긴장완화에 대한 내용이 중요하게 다루어져서 포함한 걸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남북관계와 관련, 북한의 핵심 인사들이 수행단에 포함된 점도 눈길을 끈다. 김영철 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장 등은 서훈 국가정보원장, 조명균 통일부 장관 등과 접촉과 회담 등을 통해 현 국면을 만들어 책임자라고 할 수 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남북관계 관련 합의가 이뤄지면 이를 이행하는 후속조치도 맡아야 한다.

북한에서 청년 및 직능단체를 총괄하는 최휘 당 부위원장은 이번 회담에 수행해 앞으로 정상회담 이후 대주민 설명 등 대내적 후속조치를 주도하는 역할을 맡을 것으로 예상된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중·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당

▶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파악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신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3-4306

펜션·가든 부지 매매

▶고창군 고수면 문수로 171
▶대지 및 전답 4,000㎡(전평 정남향)
▶2차선 도로, 계곡 200m 접해 있음
▶부속건물 / 한옥 / 수영장 / 방갈로
▶장성 편백숲 5분거리
▶문수사 단풍숲 2분거리

010-3768-0615
010-3799-3830

주인 직매

혈당조절

식후 혈당 상승억제!!!

식후혈당상승억제에 도움을 줄수 있음 고서혈 건강가능 기능성과 안전성을 인정받은 원료로 제조된 건강기능식품

↓ ↓ ↓

식후 2배속식음~ 하루 2번으로 식후 혈당상승 억제 야!!!

삼성제약헬스케어(주) 당디펜스(D.Defense)
식후 혈당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으로 1일 4캡슐로 혈당조절이 충분합니다.

당 디펜스

이런분들께 권해드립니다

- ▶혈당조절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
- ▶식후 혈당 상승이 걱정되시는 분
- ▶평상시 당수치가 높아 혈당조절이 잘 안되시는 분
- ▶혈당을 조절하여 건강을 유지하고 싶으신 분
- ▶생활습관이 불규칙하신 분

010-3598-7080

풋살구장 매매(급매)

시청에서 9분, 전남대에서 14분!!

상황중 즉시이용 가능(최근완공)

풋살구장4면+사무실+손님휴게실+사위장+화장실

토지 약1600평(구장 1천평, 주차장 600평)
토지 임대(매매안함)
(CCTV 등 시설 및 관련 물품포함)

◆시세가 3억 3천◆
매매가 2억 6천 5백

구장운영자 010-6603-0680